

톡톡 튀는 공동브랜드 잇따라

서울성북구·성남시등 지자체 상품특화 적극 홍보·판로 지원

“트리즘, 어울리오란 브랜드를 들어보셨나요”
자치단체들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
세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잇따라
공동브랜드를 내놓고 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처음으로 98년 ‘트리즘
(Trizm)’이란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다. 27개 임
가공업체가 참여해 스카프와 운동복, 구두등 60
여개 품목을 만들어 수출까지 한다. 공무원들이
직접 관촉활동에 나설 정도다. 트리즘이란 삼각형
이란 뜻의 영어 triangle과 sensualism(관능주
의)의 합성어다. 용산구는 기존 공동브랜드 ‘미르
빌(Mirvil)’ 외에 스웨터 등 편지물 공동브랜드인
‘지지(XiXi)’와 이태원 일대의 가족 및 모피 공동
브랜드 ‘틴빅(Tinvic)’, 가방류 공동브랜드인 ‘가
비앙(Gaviant)’ 등 4종을 개발, 최근 특허청에
상표출원 절차를 마쳤다. 업종별로 공동브랜드를
다양하게 개발, 지역상품을 특화하기 위해서다.
중랑구는 지난해 10월 ‘더조아(Thezoa)’를 만들
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말 공동 브랜드 ‘어울
리오(Oullio)’를 개발했다. 우리말 ‘어울리다’와
감탄사 ‘오’를 합친 합성어다. 보석과 시계, 피혁,
신발, 단추 등 62개 품목에 사용할 예정이며 중
기공동브랜드협의회를 구성하고 조만간 법인설
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동브랜드는 자치단체가
홍보에서부터 판로까지 지원하고 있어 짧은 기일
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브랜드 인
지도가 일정 레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매일, 2001. 1. 16(금)]

공무원이 소송업무 처리

경북도 1년새 15건 승소, 예산 4,700
만원 절감

경북도는 도가 당사자가 되는 각종 소송과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업무를 변호사에 위
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 예산 절감
은 물론 승소율을 높이고 있다.

8일 도에[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도나 국가
관련 소송 64건 가운데 44건을 공무원이 직접
담당했다. 국가소송이 16건,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13건 등이다.

이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난 것은 16건이며 1
건을 제외한 15건을 승소했다. 변호사에게 소
송을 위임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
4,770만원의 예산도 절감했다.

특히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안동
댐 가두리양식장 연장허가 불허가에 따른 손
실보상금 청구소송 등을 이겼다. 도 관계자는
“관계 공무원들이 사건 원인분석은 물론 정부
기록보존소와 국회도서관 등에 보관된 증거자
료를 수집하고 관련자를 면담해 증인을 확보
하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말했다.

[대한매일, 2001. 1. 9(25)]